

'88년 양계업계 10대 뉴스

편집부

■ 양계산물 수입감시품목 해제

'88년말에 양계산물의 수입감시품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입감시품목에서 해제되리라 보여진다. 현재 일부 공업용 난백만 수입되고 있는 국내시장에 계란수입이 자유화된다면 가격이 불안정하고 사육규모의 영세성과 시설낙후로 생산비가 높은 국내 양계산업은 경쟁에서 뒤지리라 보인다. 특히 외국에서 과잉생산된 물량이 덩핑으로 들어올 때는 국내시장을 문란시켜 양계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양계산물 수입관세에서도 정부는 조란과 난황을 현행세율 30%에서 점차적으로 세율을 낮추어 93년에는 20%로 낮추려고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양계업자의 반발은 거세어지고 있다. 양계산물을 생산키 위한 중간자재인 사료, 약품, 기자재 등을 외국보다 현저히 비싼가격에 쓰고 있는 양계업자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양계산물은 수입되어서는 안되며 더구나 관세까지 내리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수입이 불가피하다면 모든 조건을 외국과 동일하게 한 후 개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당분간 양계산물 수입감시품목을 국내 양축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 소득표준을 인하

채란양계업종을 비롯한 양돈, 낙농업의 소득표준율이 인하조정되었다.

개정된 소득표준율 기본율은 채란과 양돈업은 9%에서 7.2%로, 낙농업은 8%에서 6.4%로, 채란업종과 육계업종의 소득표준율은 최저율 5.8%, 인하율 6.5%, 기본율 7.2%, 최고율 9.9%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으로 연간 소득이 1억원인 채란업자의 경우 종전 70만5천원에서 24만5,340원이 경감된 45만9,660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소득표준율은 국세청이 가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라 확정된 연간 매출액에 소득표준을 곱하면 소득금액이 된다.

■ 양계·육계인대회

양계산업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가져 양계업자의 응집된 힘을 보여주었다.

2월 채란업자를 중심으로 전양계인들은 생존권을 보호하고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양계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대회에서 양계인들은 대책없는 농축산물수입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계인 스스로 생존권을



보호할 것을 결의하고 양계산업 안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정기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육계업자들은 10월 육계업자의 단합을 모색하고 부화협회 창립과 함께 병아리가격이 상승하는데 자극받아 500여명이 모여 세미나와 함께 육계인대회를 가졌다.

두차례 전국규모대회에서 처음부터 목표를 세워놓고 실현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일단 사육자들이 모여 뜻을 같이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 육계업 호황

'87년 복경기에 실패한 육계업계는 금년들어 의욕 저하와 입추자제로 하반기에는 1,000원대를 유지하는 호황을 맞이하였다. 일반적으로 병아리가격이 좋을 때는 육계경기가 나빠지고 병아리가격이 나쁠 때는 육계경기가 좋아진다는 통례가 맞아 떨어진 한해였다.

육계업자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 신중한 입추로 부화업계는 100원이하의 병아리가 덤핑되며 침체에 빠진 반면, 육계업계는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육계업도 여름철 혹서와 사료질의 저하, 질병의 만연으로 성장이 둔화되었고 폐사가 높았던 어려움이 있었다.

사육수수가 적었고 관리가 어려워 육계업자가 높은 육계시세만큼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난점도 있었지만 그동안 일그러진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펴 수 있었던 한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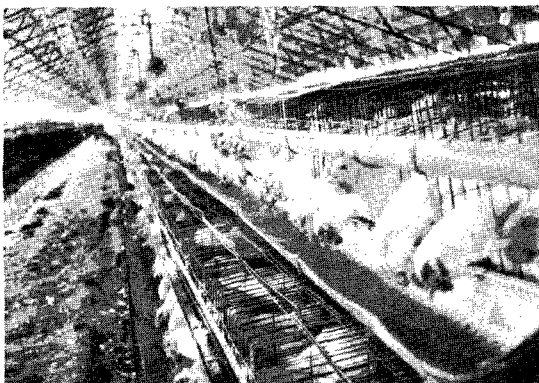
한편 바다시세를 맴돌던 병아리가격은 육계가격의 호황에 힘입어 9월부터 250원 이상의 좋은 시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11월부터는 병아리가격이 400원 가까이 상승,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 부화협회 창립

부화업계가 병아리값 폭락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개책을 모색키 위하여 부화업자만의 모임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1차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부화업계에서도 정확한 종계수수나 입란수를 파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어왔다. 부화산업은 물론 양계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통계부재에서 오는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가격이 불안정했기 때문이라 분석하고 병아리 수급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한데 따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200개소 미만인 부화중계업계에서 단합하면 조절이 용이하다고 보고 부화협회를 창립하였다.

부화협회의 창립은 양계업계의 분열이라는 일부의 인식도 있지만 반면에 이익단체의 전문화 추세에서



는 앞으로 부화협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부화업자의 단합과 수급조절을 통한 병아리가격안정을 위해 모인 부화협회가 아직은 모든 부화인을 수용치 못하고는 있다. 또한 병아리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수조절 기능을 갖지 못하며 병아리가격이 치솟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부화업자 모임에 새로운 기능이 요구되며 단합이 기대된다.

■ 사료가격 상승

한국의 주요 사료곡물 공급국인 미국 콘벨트지역의 가뭄과 한발로 국제곡물시세는 6월부터 폭등하여 (당 110\$대를 유지하던 옥수수시세가 160\$대까지 기록하며 한때 식량위기관까지 대두되어 식량자급도가 낮은 국가를 위협하였다. 생산량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옥수수시세는 140\$대로 안정을 이루었지만 미국의 곡물감수로 다른국가의 곡물가격도 동반상승하여 '83년 이후 또다시 주기적인 고곡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연초 사료업계는 일제히 사료가격을 인상하였지만 담합에 의한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는 판정으로 원상복귀시켰고 7월들어 또다시 사료가격을 인상시켰다. 원자재 비중이 높은 사료업은 국제곡물파동으로 또 한차례 사료가격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사료곡물수입 관세의 인하와 원화절상으로 사료가격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국제곡물가 상승폭을 상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연말이나 연초쯤 5~10%정도 인상되리라고

전망된다.

양계사료에서 적자경영을 면치 못했던 사료업계에서는 7월 인상때처럼 타가축사료에 비해 양계사료 인상폭이 더 크리라 예상되어 양계업자의 어려움이 더 커지리라 보인다.

■ 지난가의 장기화

호황을 계속해 오던 계란가격이 '82년이후 생산비를 밀도는 시세를 유지하다 금년들어 채란업은 최악의 상태로 빠졌다.

소비자의 계란에 대한 인식부족과 유통구조의 부재로 가격결정의 주도권이 상인에게 넘겨진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를 앞지른 생산과잉이었다고 분석된다.

채란업계의 장기간 계속된 불황으로 문을 닫은 양계장이 속출하였고 계속하고 있는 양계장도 채란업을 포기할 것인가, 아난가 하는 문제를 모든 채란양계인이 심각하게 검토해 본 한해였다.

특히 금년에는 대란가격이 생산원가를 크게 밀도는 30원대를 기록한 날들이 많았다. 더구나 계란가격이 하락세에 있을 때는 고시가격에서 5~6원까지 내려져 출하한 농장이 많아 2중가격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

과잉생산으로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채란업이 양축가의 의욕저하와 도산 양축가의 속출로 사육수수가 급격히 감소되었다. 계란가격도 연말부터는 회복세를 보여 '89년도 계란가격 전망이 밝아 금년말을 기점으로 불황의 늪에서 당분간 벗어나리라 보인다.

■ 양계업협동조합 설립 활발

양계산업 구조개선과 생산자 이익보호를 위한 양계협동조합이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에 이어 전북지역과 천안지역에 설립, 정식인가를 받고 활동에 들어갔다.

타 축종에 비해 앞서가던 산업으로 호황을 누리던 양계산업이 80년대 들어서 구조적인 모순에 빠져들



게 되었다. 생산자를 중심으로한 타개책의 하나로 협동조합론이 대두되면서 협동조합이 두곳에 설립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설립추진 움직임이 활발한 한해였다.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설립된다면 협동조합을 통한 수급조절을 기하여 양계산물 안정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공동출하를 통해 그동안 상인들의 농간을 없애며 생산자가 주도한 유통체계를 마련하므로 유통구조개선과 상품성 향상을 꾀하게 되리라 보여져 양계산업의 앞날을 밝게 해주고 있다.

■ 계열화 모색 활발

'88년도는 계열화 추진모색이 활발한 한해였다. 천호그룹에서 계열화를 추진하여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한후 양계업자의 소망이던 계열화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금년들어 이리에 소재한 하림식품이 계열체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천호그룹이 마니커랜드를 만들어 유통기지를 갖추어 놓고 재정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대한브로일러, 미원, 제일제당 등 많은 업체에서 계열화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갖추고 있다.

병아리, 사료,약품, 기자재, 생산, 유통 등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양계산업이 계열화 주체를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을 이룸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계열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여건

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은 양계업계의 앞날에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실정에 맞는 계열화체제를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 질병발생을 폭발적으로 늘어

고밀도 사육에 의한 양계질병이 그 어느 해보다 발병율이 높아 양계산물 출하가격에 영향을 미칠만큼 극심한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 양계장에서는 법정전염병으로 되어 있는 추백리, 뉴캐슬병을 비롯한 IT, 마력, 류코싸이트 준병 등 폐사성이 높고 증체를 저하 및 산란을 저하를 나타내는 질병이 예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다발하였다.

육계질병은 '88년 하반기 접어들어 육계값이 호황을 이루자 올인-올아웃 사육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더욱 발병이 심했으며, 산란계는 계속되는 저난가로 인하여 예방프로그램에 의한 백신접종이 되지 않았으며 근자에 없던 인력난으로 예방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더욱 질병발생을 유발하였으며 이보다 더 큰 근본적인 원인은 부화경기가 침체되면서 부화장에서 우수한 병아리를 생산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위생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거니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축가들이 자발적으로 질병억제에 공동대처해야 할 것이다.

양국희